

우리의 제일 큰 재산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큰물피해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2 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를 결속하시기에 앞서 회의참가자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번에 입은 피해는 엄중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당과 정부가 반드시 복구대책을 세워줄것이라고 믿고있을것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제일 큰 재산이고 자원이라고.

자신의 한몸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큰물피해지역에 나오시여 수재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조사업을 직접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런데 오늘은 침수논우에 벗어선 련차에서 큰물피해를 시급히 복구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니 세상에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같으신분이 또 어디에 있으랴.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기 당과 정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신의는 금전을 가지고도 얻을수 없는 진짜재원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애지중지하여야 하며 믿음어린 시선으로 당과 정부를 바라보며 기대하고있는 인민들에게 실지 행동실천으로써 보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뜨거운 걱정속에 새겨안은 일군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세차게 울리고있었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자애로운 아버이를 높이 모시여 이 땅에는 인민의 복된 삶의 노래가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라고.